

## 고전서사 속 용골대 인물 형상화의 다기한 양상과 그 의미

엄태웅\*

- I. 서론
- II. 장계와 일기 속 용골대: 역사적 실상에 가까운 존재
- III. 고전소설 속 용골대: 통속적 영웅 서사의 악인으로 대상화된 존재
- IV. 설화 속 용골대: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들을 대변하는 존재
- V.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병자호란의 중심에 있었던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大, 1596~1648)가 조선 후기 서사문학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주지하듯 용골대는 병자호란의 주역으로서 조선에 크나큰 상처를 준 장본인이다. 조선인에게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고전서사 문학 속에서 그는 위협적인 존재로만 형상화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을 서사의 무대에 가져오면서, 승리한 장수 용골대를 패배한 장수 용골대로 바꾸어버리기도 하고, 승자와 패자 구도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그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는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라는 서사문학의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다채롭게 변모했음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용골대와 전란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경험적 서사에 해당하는 작품부터 고전소설, 설화에 이르기까지 용골대가 등장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그 특징적 양상을 도출하였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핵심어: 용골대, 병자호란, 심양장계, 병자록, 임장군전, 박씨전, 백학선전, 현수문전, 배시황전, 벽암대사, 박엽, 대동기문, 우풍헌, 계암만록, 설화

## 1. 서론

주지하듯 ‘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까지 포괄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전쟁’은 사람들을 생사(生死)와 같은 극단의 갈림길로 내몰며 극도의 긴장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한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몸에는 물론이거니와 내면 깊은 곳에도 아물지 못할 상처를 갖게 되기 마련이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쓰라림을 견뎌내며 전쟁의 폭력성을 세상에 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처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세상과의 소통조차 시도하지 못하기도 한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누구에게나, 전쟁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평생의 아픔인 것이다.

전쟁에 대한 경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세에 전승되면서 공동체의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한 개인에게도 경험과 기억 사이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 대한 기억이 다수의 사람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공유될 경우에는 직접 경험한 내용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서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에 대해 점차 무감각해지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전쟁이 유발한 문제에 대해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그어진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전쟁의 기억에 자유로운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전쟁 이후 전쟁은, 전쟁을 기억으로 경험한 이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재구성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선택된 것들은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고 배제된 것들은 망각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한편 다양한 굴절을 겪기도

한다.

이 글은 전쟁 이후 전쟁에 대한 기억과 회복의 문제를, 병자호란의 중심에 있었던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大, 1596~1648)의 형상화 양상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병자호란이 비교적 짧게 끝나버렸음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각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든 굴욕적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상하를 막론하고 당시 조선인들이 입었던 물리적 피해의 잔흔이 깊고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용골대는 이 전란의 주역이었다. 그의 악행은 인조가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소현세자를 비롯한 볼모들이 심양(瀋陽)에 머물던 때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였다.<sup>1)</sup> 조선인에게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서사문학 속에서 그가 늘 공포의 대상으로만 형상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임장군전>이나 <박씨전>에서 용골대는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데 활용된다. 역사적 사건을 서사의 무대에 가져오면서, 승리한 장수 용골대를 패배한 장수로 바꾸어버렸다. 문학작품을 통해 상상적 설욕을 도모하였다는 그간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용골대를 정반대의 위상에 놓을 때에는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은 단순히 승자에서 패자로 전환되는 경우만 있지 않았다. 용골대는 조선과 힘을 합쳐 공통의 적을 물리치는 협력자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용골대가 ‘조선인’이 되기도 한다. 다채로움은 인물 형상에서만 아니라, 용골대가 등장하는 서사문학의 여러 갈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골대는 경험적 서사라 할 수 있는 일기(日記), 장계(狀啓)는 물론 허구적 서사에 해당하는 고전소설이나 설화의 여러 작품에까지 소환된다. 허구적 서사라고 한데 묶어 언급했지만, 용골대가 등장하는 이들 고전소설이나 설화의 스펙트럼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것부터 허구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까지 매우 넓다. 이를 통해 전쟁 이후 서사문

1) 김기림, 「조선인의 청국 생활-소수자의 삶」, 『이화어문논집』 제34집, 이화어문학회, 2014, 37~62면. 소현세자 일행이 심양에 볼모로 잡혀 가 있는 동안 용골대로부터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이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학 속 용골대에 대한 형상화는 단일한 특징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한국 고전서사문학에 형상화된 용골대의 다기한 면모를 찾아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채로움을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특징이 ‘재난 이후의 회복’이나 ‘재난 이후의 기억’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고찰한 자료를 통해 성글게나마 그 의미에 대해서 추단(推斷)해보도록 하겠다.

용골대가 서사문학에 반영되는 과정의 시간적 순서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순서는 대체로 실제 역사에 가까운 모습에서 실제 역사와 거리를 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그 순서를 따라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실제 역사 속 용골대의 모습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서사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 서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장계인 『심양장계』와 일기인 『병자록』을 다룰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실제 용골대의 모습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형상을 보여주는 허구적 서사를 다룰 것이다. 3장에서는 허구적 서사 중 먼저 소설에 주목한다. 용골대가 등장하는 <임장군전>, <박씨전>, <백학선전>, <현수문전>, <배시황전> 그리고 <인조대왕실기>를 다룰 예정이다. 4장에서는 허구적 서사 중 설화에 주목한다. 『동야회집』, 『대동기문』, 『계암만록』 등 야담패설집과 『한국구비문학대계』, 『조선향토대백과』, 시지, 군지, 디지털문화대전(성남, 철원), 『한국지명유래집』, 『서울지명사전』 등에 등장하는 용골대 관련 설화를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서사문학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개별 작품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작품을 언급하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 II. 장계와 일기 속 용골대 : 역사적 실상에 가까운 존재

당연한 얘기이지만, 역사적 실상에 비교적 가까운 경험적 서사에서 용골

대는 실제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두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서사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피해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지었기 때문에 가해자인 용골대가 서사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다.

용골대가 등장하는 경험적 서사로는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가 쓴 보고서인 『심양장계(瀋陽狀啓)』와 나만갑(羅萬甲, 1592~1642)이 쓴 일기 『병자록(丙子錄)』을 들 수 있다. 두 기록에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손에 꼽는다. 그 장면들에서 용골대는 실제 역사 속 그 모습처럼 공포의 대상이다.

먼저 『심양장계』를 살펴보자. 『심양장계』는 소현세자 일행이 서울을 출발할 때인 1637년 2월 8일부터 1643년 12월 15일까지 인조에게 올렸던 장계이다. 임금에게 보고하는 공식적인 글인 만큼 청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중심이었으며, 그와 더불어 심양에서 일어난 사건, 생활 상황, 세자나 대군 이하 신하들의 동정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sup>2)</sup> 조선의 입장에서 서술된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당대의 실상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성격의 글일 수밖에 없다. 아래와 같은 일화에 용골대가 등장한다.

용장군[용골대]이 정명수를 시켜 말하였습니다.

“용장군이 지금 나가야 하는데 마장군[마부대]의 집에서 죽은 말의 값을 받아 달라고 간청하니 죽은 사람 집의 일이라 용장군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요. 원가에서 40냥을 깎아서 받겠다고 하니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0냥을 이곳의 돈으로 우선 주었습니다. 그 전에 값은 70냥도 의주에서 받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며 이 80냥도 의주에서 변방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어 내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용장군이 서쪽으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여장을 마련하기 위해 말 1필과 공금으로 속량할 사람 하나를 팔고 싶어 하므로 말값 60냥과 공금으로 속량할 남자 한 사람에 110냥을 주었습니다.

...

또 용장군이 떠나면서 정명수를 시켜 말하였습니다.

“또 공금으로 속량할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값은 2백냥으로 팔기를 원함

2) 정하영, 『심양장계 해제』, 정하영 외 옮김, 『심양장계-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 2008, 23면.

니다.”

그 값이 너무 비싸서 계속 타일렀더니,  
 “한 사람에게 2백냥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장군의 형이 죽어서 그 장례에 쓰려고 하는 것이니 조정에 보고를 올려서라도 부조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했습니다.<sup>3)</sup>

소현세자 일행은 용골대를 비롯한 청인들의 경제적 압박이 심함을 지적하고 있다. 용골대는 끊임없이 조선인들에게 이리저리한 비용을 부담케 했는데, 대부분 그 사유가 매우 부당한 것이었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터무니없이 많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심양에 있던 조선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용골대 측의 이러한 요구에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병자록』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일기의 저자 나만갑은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있던 동안 인조의 근측(近側)에서 관항사(管餉使)라는 직책을 맡으며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보고 들은 내용을 일기의 형식으로 적었으므로, 이 작품은 -특정인의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당시의 실상에 부합한다.

나만갑은 조선의 시점에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당연하게도 남한산성에 머물던 조선 조정의 긴박한 상황이 중심을 이룬다. 청군은 조선의 상대자로서, 작품은 조선에 대한 청군의 태도 혹은 조선의 입장에 대한 청군의 반응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용골대의 인물 형상을 직접적으로 부각한 장면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기록은 용골대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나만갑을 비롯한 당시 조선인들이 용골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지난번 오락개 사신이 왔을 때, 영의정 홍서봉(洪瑞鳳), 이조판서 이현영(李顯英) 등이 만상(灣上)에서 용호(龍胡, 용골대)를 위해 거들어만 주고, 한 가지 일도 변론하여 다툰 것이 없었다.

팔도의 수령 방백(方伯)들이 저네의 성내는 것만 피하려고, 죽을 뻔했다가 거

3) 소현세자, 『심양장계(瀋陽狀啓)』, 경진년(1640) 6월 20일.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심양장계(瀋陽狀啓)』, 1935, 218~220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하영 외 옮김, 앞의 책, 384~385면; 김기림, 앞의 논문, 55~56면. 한문 원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우 살아서 도망쳐 돌아온 우리나라 백성과 한인(漢人)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이미 자손들을 낳고 사는 사람들까지 진위도 가리지 않고 마구 많이만 보내서, 비국(備局)에 이르러 점검을 하는데, 부자 형제가 서로 붙잡고 울며 이별하기도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손가락을 잘라 주기도 하여, 온 뜰에 흐르는 피가 낭자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을 듣고는 모두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용골대는 그 세 가지 사람들을 몇 백 몇 천인지 알 수 없게 많이 얻었지만, 한 없이 욕심을 내어 뒤따라 100명을 더 보내라고 하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약속하자고 했다. 영의정, 이조판서와 원접사(遠接使) 이경증(李景曾) 등이 100명은 너무 많으니 찾아내는 대로 그때 그때 보내기로 약속하는 글을 써서 수결(手決)을 두었는데, 그 뒤에 저들이 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독촉을 하여, 훗날에 한없는 폐해를 당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다.<sup>4)</sup>

청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향화인을 쇄환(刷還)하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 그 요청이 지나치고 방식이 막무가내여서 매우 참혹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용골대는 이에 한술 더 떠서 추가로 100명을 더 요구한다. 용골대는 청 황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조선과 관계된 일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용골대의 요청은 곧 법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일부러 향화인을 만들어서라도 그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다. 이런 용골대의 모습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렇듯 당시 조선인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기록한 용골대의 형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에 대해 그가 지니고 있었던 막강한 영향력을 옹지 않은 방식으로 행사하였다.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조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함은 물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 억지로 실적을 부풀려 조선인을 압박하기도 했다. 조선인들이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일삼은 용골대를 되도록 피하고 싶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은 용골대가 청나라 사람이며 조선과의 외교에서 실권을 쥐고 있었던 관료였기 때문이다. 결국 용골대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은 그와 청나라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4) 나만갑, 윤재영 옮김, 『병자록』, 명문당, 1987, 189~190면. 이 책은 『병자록』 이본 중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대본으로 삼았다. 한문 원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직접 경험의 기록에서 용골대는 기록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위 인용문이 용골대가 서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몇 안 되는 대목이며 용골대가 서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대목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심양장계』나 『병자록』에는 용골대의 인물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서사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문헌이 비교적 객관적인 기록이면서도 조선인의 관점을 바탕으로 서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이나 설화와 같은 허구적 서사로 시선을 돌려보면 전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허구적 서사에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은 실제 역사적 사건의 실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그렇게 생겨난 빈자리를 허구적 내용이 대신하게 된다. 이때 그 허구적 내용은 경험적 서사 속 용골대의 면모, 즉 피하고 싶은 존재이자 두려운 존재로서의 면모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려질 뿐만 아니라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리고 허구적 서사에서는 용골대가 대체로 작품의 전면에 부각되며, 그 와중에 서사의 주체가 되어 일부 에피소드를 온전히 담당하기도 한다. 장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III. 고전소설 속 용골대 :

#### 통속적 영웅 서사의 악인으로 대상화된 존재

Ⅲ장에서는 고전소설에 형상화된 용골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전소설 중에서 용골대가 한 번이라도 등장하는 작품은 <인조대왕실기>, <임장군전>, <박씨전>, <백학선전>, <현수문전>, <배시황전> 등 여섯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그중 용골대가 매우 단편적으로 언급만 되는 <인조대왕실기>를 제외한 다섯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다섯 작품은 고전소설이라는 장르 범주로 묶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작품부터 허구적 서사가 대부분인 작품까지 편폭이 넓다. 그래서 서인지 용골대의 인물 형상도 다채롭다. 용골대가 꼭 적대자라면 등장하지

도 않아서, 용골대가 조선군과 협력 관계인 경우도 보인다. 또한 용골대 1인만 등장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용골대의 형제들이나 용골대를 연상시키는 ‘○골대’와 같은 이름의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이들 작품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은 흥미로운 특징을 품고 있다. 그런데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흥미로운 특징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몇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형		작품명	주인공과의 관계	관련 등장인물	
1 유 형	1-1 유 형	<임장군전>	적군(적대자)	용골대 단독(1인)	↓ ↓ ↓
		<박씨전>	적군(적대자)	용골대 형제(2인)	
	1-2 유 형	<백학선전>	적군(적대자)	용골대 삼형제(3인)	
		<현수문전>	적군(적대자)	‘○골대’ 8여 명	
2유형		<배시황전>	아군(협력자)	용골대, 부골대	

이 표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배시황전>이 다른 네 작품과 달리 용골대를 아군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임장군전>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에는 용골대 혹은 용골대와 관련한 등장인물이 여럿 등장한다는 점이 다른 하나이다.

이러한 특징적 사실을 토대로 이들 작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경향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유형 속 용골대는 고전소설보다는 IV장에서 논할 설화와의 친연성이 더 강하다. 둘째, 1유형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서사의 정도 차이에 따라 ‘1-1유형’과 ‘1-2’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둘째와 같은 이유로 1유형은 한데 묶여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으며 허구화의 정도에 따라 위 순서로(<임장군전>-<박씨전>-<백학선전>-<현수문전>) 병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1유형에 주목하겠다. 그리고 위 표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용골대의 다채로운 인물 형상을 통해, ‘역사적 인물인 용골대가 통속적 서사 속 적대자로 대상화되는 양상’과 ‘서사의 허구화 정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유형은 이 장의 마지막에 언급하되, 다음 장(IV장)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 1. <임장군전>과 <박씨전> : 역사적 인물에서 서사적 인물로

주지하듯 <임장군전>과 <박씨전>에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허구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그렇기는 해도 구조적으로 볼 때 이들 작품의 서사적 근간은 역사적 사실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청나라가 병자호란에서 승리하고 왕대비와 세자 등을 볼모로 잡아가는 역사 속 실상이 작품에 그대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용골대는 두 작품에서 모두 이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가 교만한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점은 장계나 일기와 같은 경험적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전소설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용골대의 인물 형상 또한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그려진 것이다. 다만 이때에는 용골대가 서사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다. 서사적 관점에서 보면 용골대에 대한 인물 형상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저 사건을 소개하는 가운데 용골대가 언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아래 인용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임장군전> : 용골더 송파장에 결진하고 승전고를 울니며 교만이 특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비양하며, 왕대비와 중궁을 보내고, 세자 더군은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5)

<박씨전> : 각설 국운이 불행하여 호적이 강성하여 왕대비와 세자 동군을 스로잡고 국가 위티힘미 다 즘점의 도적을 인도함이니 엇지 절통치 아니리오. 슬푸다 여러 날 도적의게 에운 비 되어 세궁역진하여 상이 도적의게 강화하시니

5) 경경관27장본 <님장군전>. 김기현, 『박씨전, 임장군전, 배시황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5, 246~249면. (이하 <님장군전>과 면수만 표기)

… (용골대가) 회군하여 발흥홀시 왕대비와 세자 동궁이며 장안미식을 다리고 가는지라. 6)

임경업과 박씨 부인은 용골대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왕대비와 세자 일행이 호국에 불모로 잡혀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 보기만 한다. 소설 속 병자호란은 여전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박씨전>은 <임장군전>과 달리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역사적 사실의 울타리를 넘어서려 한다.

박씨 계화로 위여 왈, “홍진비락요 고진감니라 하니 이 다 천슈니 너무 서러 말고 잘 가 잇스면 십 년 후 호국의 드러가 다려올 씨 잇슬 거시니, 부디 세조 동궁을 피서 잘 잇다가 씨를 기다리라.”7)

박씨 부인은 일행에게 3년 후 호국에 들어가 데려올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왕대비와 세자 일행이 불모로 잡혀가는 것을 막는, 역사적 실재를 넘어선 허구적 상상력은 작품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이라도 호국에 들어가 그들을 구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 작품이 그저 역사적 결과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역사적 결과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대어 보려는 시도를 통해, 이 작품이 허구적 서사로 나아가고자 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두 작품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임장군전>에 비해 <박씨전>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벗어나려는 조짐이 눈에 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차이가 허구적 상상력이 주되게 발현된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6)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박씨전>. 김기현, 『박씨전, 임장군전, 배시황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206~213면. (이하 <박씨전>과 면수만 표기)

7) <박씨전>, 214면.

## ① &lt;임장군전&gt;

두 작품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구적 상상력을 더 하여 작품의 서사적 흥미를 유발하였다. 이는 대체로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데, 이에 따라 용골대의 인물 형상도 역사적 사실과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용골대의 서사적 비중이 커지고 인물 형상도 구체화된다. 두 작품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변화의 정도에는 적지 않은 편차를 드러낸다.

먼저 <임장군전>의 경우를 살펴보자. 병자호란에서 승리한 용골대는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경업을 만나게 된다. 이는 역사적 실상과는 거리가 먼 허구적 설정이다. 이를 통해 작품이 용골대를 어떻게 형상화하려고 했는지 그 단초를 파악할 수 있다.

호장이 상훈낙담하여 십니를 물너 진을 치고 궤장군을 모화 의논 왁, “경업은 용땡흐니 장찰 엇지허리오.”

허더니 문득 생각흐되, ‘경업은 충신이라. 이제 조선왕의 항서와 전교훈 공문을 니여 뵈면 만다시 귀순허리라.’

하고 진문에 나와 웨여 왁, “님장군은 나와 조선왕의 전지를 바다보라.”

허거늘 경업이 의아하여 디미 왁, “네 감히 날을 속이려 흐논다.”

용골대 군스로 하여곰 문서를 전하니, 경업이 문서를 batz와 보고 양천탄식흐는지라. 호장 왁, “너희 국왕이 항복하고 세즈 디군을 불모로 잡아가거늘 네 엇지 감히 왕명을 항거하여 역신이 되고져 흐논뇨.”

허고 만단기유허거늘 경업이 쓰흔 하교를 보았는지라. 할일업서 환도를 집에 싣고 호진에 통흐고 드러가 세즈 디군을 뵈옵고 실성 통곡하니 세즈 디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유체 왁, “국운이 불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거니와, 바라건디 장군은 진심하여 우리등을 구하여 다시 부왕을 뵈옵게 하라.”<sup>8)</sup>

용골대 일행이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경업이 나타나 호장과 호병을 마구 죽여 전열이 흐트러지자, 용골대 측에서 임경업에게 조선왕의 문서를 보여주어 상황을 모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물리력으로는 임경업을 당해 내지 못하자 충신인 임경업 앞에 조선왕의 문서를 보여줌으로써 그를 무기

8) <님장군전>, 252~253면.

력하게 만든 것이다. 이 장면은 임경업의 장수로서의 뛰어난 면모와 더불어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임경업의 그러한 면모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경업의 적대자인 용골대는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꾀를 쓰는 비겁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실제 역사에서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용골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주지하듯 이 작품은 허구적 내용을 가미하여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였다. 역사 속 실제 인물인 주인공 임경업을 허구적으로 영웅화할 때에는, 주인공 중심의 영웅적 서사를 전개하기 위해 그에 반대되는 인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영웅적 서사의 이와 같은 전형적 구도 속에서 주인공의 적대자인 용골대는 악인으로 ‘대상화’되면서 비영웅적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 것이다.

## ② <박씨전>

<임장군전>은 그래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주인공을 허구화하는 정도가 <박씨전>에 비해서 약하고, 용골대가 악인으로 대상화되는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박씨전>에서는 허구적 내용의 이야기가 짧지 않다. 용골대와 박씨 부인이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길게 등장하는데, 주지하듯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와 박씨 부인의 시비 계화가 만나는 장면도 중요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작품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역시 순전히 허구적인 내용이다. 이렇듯 허구적인 이야기가 늘어나면서 용골대의 인물 형상에도 허구적 면모가 강화된다.

계해 드른 체 아니코 더미 왈, “네 동성이 니 칼의 죽었시니 네 쏘흔 명이 니 손의 달녓시니 엇지 가소롭지 아니리요.”

용골디 더욱 분기등등혀여 군중의 호령혀여, “일시의 활을 달여 빠라!”

하니 술이 무슈혀되 감이 혼 지도 범치 못혀는지라.

용골디 아모리 분흔들 엇지혀리요. 마음의 탄복혀고 조선 도원슈 김즈점을 불너 왈, “너의 인제는 니 나라의 신하라. 니 영을 엇지 어기리요.”

즈점이 황공디왈, “분부더로 거형혀오리다.”

용골디 호령혀여 왈, “네 군스를 모라 박부인과 계화를 싱금혀여 드리라.”

하니, 즈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의 군스를 모라 피화당을 에워쓰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빙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골디 그 변을 보고 조련이 파치 못할 줄 알고 혼 씨를 생각하여 군스로 하여곰 피화당 스방 십니를 곱히 파고 화약 염초를 만이 붓고, 군스로 하여곰 각각 불을 지르고, “너의 물이 아모리 천변만화지술이 잇스들 엇지하리오.”

하고 군스를 호령하여 일시의 불을 노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되 벽너 갖튼 소리 너며 장안 습십리의 화광이 충천하여 죽는 지 무슈하드니라)

용골대는 동생 용울대의 원수를 갚고자 피화당에 가 박씨 부인과 계화를 공격하지만 그의 공격은 모두 무위에 그친다. 일시에 쏜 화살이 피화당에 하나도 범하지 못하자 용골대는 분하게 여기는 한편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김자점을 시켜 박씨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으라고 명령하는 비겁한 방법을 쓰는데, 김자점 또한 황겁함을 느낀다. 용골대는 다시 피를 냈지만 역시나 수포로 돌아간다.

용골대는 <임장군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량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박씨전>에서는 그러한 깨달음이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온다. 용골대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표지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다. <임장군전>에서 비영웅적이라고 했던 것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한 편이다.

호장등이 빅비스레하고 용골디 알외디, “황공하오나 쇼장의 으오 머리를 주읍 시면 덕택이 티손 갖들가 바라노이다.”

박씨 우시며 일변 꾸지져 왓, “그는 못하리로다. 옛날 조양지는 지빅의 머리를 칠하여 술잔을 만드려 진양성의 분호물 써서 천추만세의 유전하엿스니 이제 우리는 너의 아오 머리를 칠하여 강화성의 분호물 써시리라.”

후디 용골디 이 말 듯고 아모리 더성통곡헌들 엇지하리오.10)

용골대가 박씨 부인에게 아우 용울대의 시신을 거두어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할 때는 ‘황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다. 박씨 부인은 이 요청에 용골

9) <박씨전>, 210~211면.

10) <박씨전>, 214~215면.

대를 꾸짖고, 결국 용골대는 시신을 거두지 못한 채 대성통곡하며 돌아간다. 비굴함마저 느껴지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박씨전>에서는 허구적인 사건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용골대의 인물 형상 또한 실제 역사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골대가 악인으로 대상화된다는 점에서는 <임장군전>과 대동소이하지만, <박씨전>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용골대가 악인으로 대상화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 용골대를 연상시키는, 비슷한 듯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문에서 등장한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가 바로 그 인물이다. 이 인물은 작품의 서사적 흥미를 위해 허구적으로 창조된다. 이 글에서는 용울대와 같은 인물 유형을 ‘파생 인물’이라 칭하겠다.

악인으로 대상화된 용골대와 더불어 용골대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악인, 즉 파생 인물을 추가하여 선악 인물 간 갈등을 심화하고 서사적 위기감을 고조하게 되는 것이다.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가 고조되면, 주지하듯 악인으로부터 발원한 문제가 해결될 때에 느끼는 통쾌함도 더욱 커진다. 파생 인물이 작품 속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박씨전>이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 허구적 경향성을 바탕으로 서사적 구도를 갖춰가려는 과정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역사 속 인물에서 서사 속 인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작품 속에서 용울대는 허구적으로 설정된 환상적 공간인 ‘피화당’을 매개로 등장한다.

호장 용골더 제 아오 울더로 하여곰 “장안을 직희여 물식을 슈습허라.” 하고 군스를 모라 남한산성의 에워쓰는지라.

용울더 장안을 용거하여 물식을 चु심하니 장안이 물 싹똥 하니, 술기를 도망하여 죽는 스흘이 무슈허더라. 피화당의서 피란호 스흘들이 이 말을 듯고 도망코즈 허거늘

...

울더 함장비레 왈, “귀덕 부인의 뉘신지 아지 못허거니와 덕분의 슬녀쥬옵소서.”

올디 그 말을 듯고 디로혀 칼을 드러 계화를 치라 호되 경각의 칼 든 팔이  
십이 업서 놀닐 길이 업는지라. 하릴업서 하날을 우러러 탄식 왓, “디장뷔 세상  
의 느셔 만니타국의 디공을 바라고 왔다가 오날날 조고마흔 계집의 손의 죽을  
줄 었지 아니요.”

계해 우셔 왓, “불상고 가련하다. 세상의 장부라 위명호고 날 갖튼 녀즈를 당  
치 못호느냐. 네 왕놈이 천의를 모르고 예의지국을 침범코즈 호여 너 갖튼 구상  
유취를 보냈거니와 오날은 네 명이 니 손의 달녓시니 밧비 목을 늘어 니 칼을  
바드라.”

훈디 올디 양천탄왓, “천수로다.”

호고 즈결호니 계해 올디의 머리를 베여 문 밖게 다니 이윅고 풍운이 이러느  
며 천지명랑호드라.<sup>11)</sup>

<박씨전>은 실제로 존재한 적 없는 인물인 용골대를 등장시켜 피화당의  
위력을 경험하게 한다. 피화당이라는 허구적 공간이 용골대라는 허구적 존  
재로 인해 부각된다. 허구적 사건이나 대상을 역사 속 실제 인물과 연결하  
는 것보다는 새로운 허구적 인물과 결부시키는 것이 더 용이했을 것이다.

이 글은 ‘서사문학’에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  
는지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박씨전>은 매우 인  
상적이다. <임장군전>에서 그 단초가 감지되던 ‘통속적 서사 속 악인으로  
의 대상화’가 <박씨전>에서는 더욱 확장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허구화  
가 더 혹은 덜 진행되었다는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파생 인물’의 유무라  
는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 <박씨전>에서는 용골  
대가 실제 역사 속 인물 형상에서 벗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준은 물론 파생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를 등장시킴으로써 용골대를 그  
야말로 서사적 인물로 간주하려는 의지가 확고해진 것이다.

흥미로운 특징은 <박씨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용골대가 등장하는 여타  
고전소설에서도 용골대의 파생 인물이 어김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심지  
어 <박씨전>보다 더 많은 수의 파생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작품은  
<박씨전>에 비해 허구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파생 인물의 등장이 작품의

11) <박씨전>, 204~207면.

허구화 정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의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임장군전>과 <박씨전>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한 작품이다. <박씨전>이 <임장군전>에 비해 좀 더 허구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작품 또한 여전히 역사적 서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비하면 다음 장에서 다루려는 <백학선전>과 <현수문전>은 역사적 사실과 거의 무관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작품에서 용골대의 파생 인물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는 작품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벗어나 허구적 서사의 소재로서 일반적인 전쟁을 그 무대로 하며, 작품의 서사적 맥락에 따라 자유롭게 인물 형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 2. <백학선전>과 <현수문전> : 통속적 영웅 서사의 악인형 인물로

<백학선전>과 <현수문전>은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한 <임장군전>, <박씨전>과 달리 온전히 허구적 서사로 채워진 작품이다. 그래서일까. 이들 작품 속 용골대는 <임장군전>, <박씨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인물 형상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악인으로 대상화된 용골대의 인물 형상만이 등장한다. 또한 용골대의 파생 인물이 더 확대된 형태로 나타난다. <백학선전>에는 ‘용골대 삼형제’가 등장하며, <현수문전>에서는 용골대가 없는 대신 용골대와 비슷한 이름의 적장 8명이 등장한다. 차례로 살펴보자.

<백학선전>은 신표인 백학선을 매개로 결연을 약속한 유백로와 조은하가 이별 후 온갖 고초를 겪다가 다시 만나 행복을 누리는 내용이다. 작품에는 오랑캐 가달이 중원을 침범하는 상황이 등장한다. 이에 유백로가 대원수로 출전하였다가 적에게 잡히게 되는데, 뒤이어 조은하가 출전하여 가달을 물리친다. 이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용골대 삼형제는 이 과정에서 등장한다. 조은하는 용골대 삼형제, 꺾달해 팔형제, 호장 마대영 등을 물리친 뒤 가달왕을 사로잡고 옥에 갇힌 유백로를 구한다.

이 작품에서 용골대는 역사 속 인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다. 용골대는 그저 악인으로 대상화된 존재일 뿐이다. 심지어 악인의 형상 중에서도 그 영향력이 가장 미미하다. 가달국의 여러 장수 중 가장 먼저 등장해서 별다른 접전 없이 조은하에게 패배하게 된다. 용골대 삼형제가 각각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삼형제’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형상화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백학선전> 속 ‘용골대’는 이제 더 이상 병자호란의 주역이었던 청나라 장수의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기능하지 않는다. 고전소설에서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악인의 형상일 뿐이다.

용골대가 상투적인 악인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현수문전>에 와서 극대화된다. 이 작품에는 정작 ‘용골대’라는 이름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누가 봐도 용골대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되는 용골대와 유사한 이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용골대는 나오지 않고 왜 그와 비슷한 이름의 인물들만 나온 것일까? ‘용골대’가 소설 속에서 워낙 상투화되어서 용골대가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이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경판75장본의 경우 무려 8명 씩이나 된다. 이 작품에서 송나라의 주변 국가들은 중원을 노리며 송나라를 빈번하게 침입한다. 그리고 송나라 새 황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현수문이 다스리는 위나라를 침략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군담이 빈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용골대의 ‘골대’를 딴 이름의 장수들이 등장한다. 이본마다 그 이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골대’로 끝난다는 점은 같다. 용골대의 ‘파생 인물’이 여럿 등장하는 것이다. 경판75장본을 중심으로 파생 인물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진나라는 중원을 침범하는 오랑캐 중 하나이다. 진나라의 장수로는 ‘우골대’와 ‘마골대’, ‘호골대’가 있는데, 진왕은 스스로 대원수가 되어 우골대를 선봉장으로 마골대를 후군장으로 호골대를 중군장으로 삼아 정예병 10만을 징발하여 황성으로 진군한다. 이들은 현수문과의 대결에서 불과 몇 합에 혹은 큰 접전 없이 패하고 목숨을 잃게 된다.<sup>12)</sup>

12) 우골대가 세 장수 중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그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츠시 진왕이 현수문의게 일군이 디패호를 분노하여 우골더로 선봉을 삼고 쓰흠을 도도노 위왕이 진문을 크게 열고 말기 읊는 디티 왈, “너의 무도흔 오랑캐 엇지 날을 당홀소나? 썬

송나라의 새 황제는 위왕 현수문을 마뜩찮게 생각한다. 그래서 새 황제는 서번왕에게 위나라를 치라고 명령한다. 서번국에는 ‘진골대’와 ‘구골대’가 있다. 서번왕은 진골대로 선봉장을 삼고 구골대로 후군장을 삼고 정예병 10만을 징발하여 위나라로 가서 새 황제의 군대와 연합하지만, 현수문에게 크게 망신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한다.<sup>13)</sup>

이 작품에서 중원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은 흉노 북호(北胡)이다. 이들이 황성까지 쳐들어와서 결국 황제는 밤에 구리산으로 도망가고 그곳에 고립된다. 이때 북호의 장수는 ‘왕골통’이다. 비록 ‘골대’를 따른 이름은 아니지만, 용골대라는 이름과 유사하다. 왕골통은 엄청난 위력의 장수였지만 결국 현수문에 의해 불과 몇 차례의 승부로 죽게 된다. 황제가 구리산에 고

---

니 나와 너 칼을 바드라.”

하고 마즈 삭와 삼십여 합의 승부를 걸치 못하더니 우골티 괴운이 진하고 군딕 곤너흐미 군을 도로혀 본진으로 다라느거늘 위왕이 급히 썩러니 적진이 사곡으로 지는느니라. 문득 사곡으로쫓츠 방포 소리 나며 일시의 불이 니러는고 사면의 함성이 물 싹뚫호거늘 적진이 황겁하여 서로 향호를 찰히지 못호고 사산분궤호는니라. 진왕이 우골티를 붓들고 계양춘을 도로보아 왈, “이를 장궤 엿지 호리오. 사면의 화광이 충턴호고 북병이 디발하니 비록 날지 이셔도 살기될 도모치 못호리다.”

하고 방성티곡하니 장졸이 다 녀술 닐코 아모리 홀 줄 모로는니라. 위왕이 불 니러는물 보고 승승장구하여 적진을 쇠살호고 자룡검을 드러 우골티의 머리를 버혀 나리치니 진왕이 우골티의 죽는 양을 보고 호늘을 우리러 통곡 왈, “턴지망이요 비전지죄라.”

호며 칼을 썩혀 계양춘을 버히고 스스로 먹 질너 죽으니 모든 군시 손을 묵거 살기될 벌거늘,

...

<현수문전>(경관75장본). 신해진 역주, 『경관방각본 현수문전』, 보고사, 2021, 208~209면.  
13) 진골대와 구골대가 패하는 장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전을 급히 쏘니 성중의 화렴이 창턴하여 모도 불빛치라. 적군이 건디지 못하여 화렴을 무릅쓰고 다라나더니 쏘 위왕의 진을 만나미 정신을 차리지 못호고 서로 쫓바라 죽는 지 불가승쉬라. 진골티 탄왈, “위왕은 만고영웅이라 인역으로 못호리다.”

하고 항복하여 왈, “우리 왕이 굿하여 싸호려 호미 아니오 텃자의 시기미니 바르던티 위왕은 잔명을 살니소서.”

위왕 왈, “서번이 과국과 본디 친호고 혐의 업기로 노와 보니거니와, 차후는 아모리 텃자의 조세 이시나 괴병홀 의스를 먹지 말나.”

하고 돌려 보니라.

...

구골티 크게 놀나 아모리 홀 줄 모로더니 문득 산상의셔 방포 소리 나며 불이 스면으로 니러 나며 시석이 비오듯 호는니라. 구골티 양천탄왈, “니 엿지 이곳의 드러와 죽을 줄을 알니오.”

하고 쫓기로써 화렴을 무릅쓰고 산문을 느니 쏘 좌우로쫓츠 함성이 더진호고 쫓쳐오니 구골티 능히 더적지 못하여 투고를 벗고 말기 느려 복지하며 살기될 벌거늘 위왕이 크게 꾸짖고 중곤 삼십을 처 니치니 구골티가 빅비스레호고 도르가다가 인하여 죽으니, ...

<현수문전>(경관75장본). 신해진 역주, 앞의 책, 217~218면.

립된 것이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이 상황은 고전소설에서 중원의 군주가 위기에 처할 때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설정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sup>14)</sup>

마지막으로 ‘아골대’와 ‘신골대’이다. 이들은 여진국의 장수이다. 여진국도 역시 중원을 침범한다. 송나라는 위기를 맞지만 현수문에 의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난다. 현수문과 여진국 간의 군담은 비교적 긴 편이지만, 여진국 장수들이 현수문의 존재에 겁을 잔뜩 먹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용골대의 인물 형상을 고찰하는 이 글에서 <현수문전>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작품에서 무려 8명의 용골대 파생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현수문전>에서 용골대는 비슷한 이름의 인물 8명으로 등장하여 상투적 악인의 전형적 면모를 드러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파생 인물을 등장시켰다는 점도 그러하지만,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주인공에 의해 무력하게 패배하고 만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또한 상투적 악인의 전형적 면모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백학선전>, <현수문전>에서 용골대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존재감을 완벽히 벗어나 버리고 영웅 중심의 통속적 서사에서 악인의 대명사가 된다. 용골대 혼자가 아니라 용골대 형제, 용골대와 비슷한 이름의 여러 장수로 파생 인물을 만들어낸 설정 자체가 위와 같은 인물 형상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주지하듯 악인이 특정한 존재 한 명으로 초점화되지 않고 여러 명의 악인이 등장하여 그 관심이 분화될수록, 악인으로서의 개별적 위상은 낮아지며 선악의 대결 또한 패턴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허구적 상상력이 지배적인 이들 작품에서 용골대는 이제 서사적

14) 왕골통과 관련한 주요 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골통이 승세하여 물 미듯 드리오니 황제 더경실식하여 성문을 구지 닷고 나지 아니니 골통이 군을 지축하여 황성을 겹으로 싸고 엄살하니, 뉘 능히 당하리오.

...

츠시 텃지 격진의 싸이어스미 양최 진하여 시신이 만히 쥘려 죽는지라. 상이 양턴탄식하며 향코져 흐더니 문득 퇴글이 니러나며 더진이 풍긋치 모라 와 골통으로 싸호거늘 상이 성누의 올라 자시 보니 다란 이 아니오 곳 위왕 현수문이라. 자룡검이 니러는 곳의 장졸의 머리 쭈풍낙엽 굿더니 슈합이 못하여 골통의 머리 마흔의 느러지는지라.

<현수문전>(경판75장본). 신해진 역주, 앞의 책, 219~221면.

존재로 완전히 변신하게 된다. 이런 작품에서 용골대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허구적 상상력이 지배적인 작품 속에서 용골대는 역사 속 인물의 면모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 인물이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앞선 두 작품(<임장군전>, <박씨전>)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은 역사적 사실의 자장 안에 있던 작품과 그 자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품에서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추정컨대 고전소설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은 큰 틀에서 이 두 축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마저 다뤄 볼 <배시황전>의 경우, 이들 네 작품과 결이 다소 다르며 오히려 설화와 유사한 면모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에 <배시황전>은 이들 네 작품과의 동이(同異)와 더불어 설화와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III장의 결론도 대신 하고자 한다.

### 3. <배시황전> : 설화 속 용골대와 유사한 인물 형상

주지하듯 <배시황전>은 조선 군사가 청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출전했던 ‘나선정벌’의 전말을 ‘배시황’이라는 허구적 주인공을 내세워 서사화한 작품이다.<sup>15)</sup> 이 작품에 용골대가 등장하는데, 작품은 역사 속 실존 인물 용골대가 아니라 장수의 대명사로서 인식되는 용골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역사에서 나선정벌과 용골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문학에서 청나라 장수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용골대가 역으로 이 작품의 실제 역사적 사건에 부회(附會)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용골대와 그 과생 인물의 측면에서 앞선 네 작품들과는 차이가 보인다. 첫 번째 차이는 앞선 네 작품과 달리 용골대가 주인공과 협력

15) 이 논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비시황전>(김기현, 『박씨전, 임장군전, 배시황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295~327면)을 참조하였다. 아울러 <배시황전>과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권혁래, 「<비시황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209~246면; 송하준, 「<북정록>의 소설화 과정과 그 성취」,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23~353면; 김일환, 「북정(北征)의 기억」, 『한민족문화연구』 제66집, 한민족문화학회, 2019, 7~46면.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용골대는 청나라 원수로서 조선 군사와 연합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악인이 아니라 협력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다.

선악의 벽이 사라지고 용골대는 주인공과 같은 편이 되었다. 더구나 시종일관 무뚝뚝한 면모를 보이던 용골대는 승전 이후 배시황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가족을 소개하기까지 한다. 조선군에게도 적절히 사례한다. 연합군 초기에는 서로 의심과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용골대는 동지로서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첫 번째 차이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능력과 태도의 측면인데, 용골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앞선 네 작품과 유사하지만 그가 다소 희화화된다는 점에서는 네 작품과 결을 달리한다. 그는 연합군의 총책임자로 등장하는데 무모한 작전으로 연전연패한다. 그의 언행이 희화화되기도 한다. 앞선 네 작품 속 포악하면서도 주인공에게는 무기력한 용골대의 서사적 형상과는 분명 다르다.

세 번째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을 듯하나- 용골대의 파생 인물로 청나라 부수(副帥) '부골대'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파생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은 앞선 작품들과 같지만, 형제 관계가 아니면서 원수와 부수 관계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역사 속 인물인 '용골대'와 '마부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 속 용골대와 마부대가 병자호란을 주도했던 실제 역사 속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배시황전> 속 용골대와 파생 인물은 위 네 편의 고전소설 속 인물 형상, 즉 1-1유형도 1-2유형도 아닌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유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이 유형의 특징이 IV장에서 다룬 설화 속 용골대 및 파생 인물의 특징과 상당히 닮았다고 보았다. 설화 속 용골대는 고전소설 1유형과 달리 무조건적인 악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다. 악인으로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동질적인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또한 주인공에 의해 무기력하게 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 다소 부족한 존재, 그렇기에 때로는 조선에 협력을 청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용골대 혼자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골대와 마부대, 즉 실제 역사에 함께 등장했던 인물들이 동시에 거론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배시황전>은 매우 독특한 설정을 시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나선정벌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서사화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역사적 인물 용골대를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용골대의 인물 형상은 역사 속 그것이 아니라 서사문학 속, 특히 설화 속 그 모습과 닮아있다. 이 엉뚱한 조합은 실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낳았을 수 있다. 그러나 서사적 관점에서 그 오류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엉뚱한 조합으로 인해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서사의 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전소설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용골대 인물 형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역사 속 인물 형상을 전연 배제하지 못하면서도 허구적 서사 속 인물 형상의 가능성을 연 <임장군전>과 <박씨전>, 실제 역사 속 인물 형상으로부터 완벽히 탈피하여 통속적 영웅 서사의 전형적 악인으로 용골대를 대상화한 <백학선전>과 <현수문전>을 통해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역사와 허구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배시황전>은 그 소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다른 방식의 이해가 필요했다. 더욱이 이 작품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은 설화와의 친연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이에 <배시황전>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서사 작품에 설화에서 형상화된 용골대의 면모가 부회(附會)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 또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역사와 허구를 넘나들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IV. 설화 속 용골대 :

#####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들을 대변하는 존재

Ⅲ장에서는 고전소설에 나타난 용골대의 인물 형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 속 실존 인물 용골대로부터 벗어나 허구적 서사의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설화에 나타난 용골대에 주목하였다. 설화 속 용골대도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역사 속 실존 인물 용골대가 아닌, 작품 속에서 새롭게 형상화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소설 속 인물 형상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악인으로 대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적대 관계에 있더라도 악한 인물로 형상화되지 않는 편이며, 선악의 도식이 무의미한 캐릭터로 존재하기도 한다. 심지어 용골대가 원래 조선인이었다는 설화도 있다. 이렇듯 고전소설 속 악인 형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 특징으로는 -우리의 설화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용골대의 인물 형상은 대개 조선인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용골대가 등장하는 설화에는 꼭 조선의 비범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 만남을 통해 용골대는 그 인물의 비범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설화에 등장하는 용골대의 이러한 특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설화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을 ‘조선인의 비범함을 감지하는 존재’와 ‘비범한 조선인을 알아보고 함께하려는 존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조선인의 비범함을 감지하는 존재

첫 번째 설화로 경기도 성남 지역에 전하는 ‘벽암대사와 용골대’ 이야기를 들하고자 한다. 벽암대사는 무과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한 인물로, 병자호란을 예견하여 불과 3년만에 남한산성을 쌓는다. 용골대는 벽암대사가 장원급제할 때 그와 최종까지 겨룬 인물로 등장한다. 용골대가 조선을 염탐하기 위해 조선에 왔다가 무과에도 응시를 했던 것이다.

훗날 용골대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벽암대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

는 적장으로 다시 등장한다. 그런데 이때 용골대는 벽암대사가 전날 전투에서 자신을 살려준 것에 감사하며, 그 보답으로 오늘은 이만 물러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약속한 싸움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조선 장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비범함을 감지한 것이다.<sup>16)</sup>

다음으로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에는 ‘이인(異人)과 호장 용골대’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설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에는 신평면에 살며 비상한 재주를 보이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김복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김복선은 임진왜란 때 -마치 피화당을 만든 박씨 부인을 연상시키는- 신이한 능력으로 왜군을 몰아낸다. 그리고 병자호란 때에는 용골대를 마주하게 된다.

용골대는 김복선을 상대하며 제대로 대응 한 번 하지 못하고 물러난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그가 ‘조선의 유일한 지사이며 이인’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대적하였으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이기에 욕설을 듣고 헤어진 것만도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역시나 이 설화에서도 용골대는 김복선이라는 조선인의 비범한 면모를 감지한다.<sup>17)</sup>

다음은 ‘박엽(朴燁)과 용골대·마부대’와 관련한 설화이다.

(박엽은) 군읍(郡邑)을 다스림에 미처서는 위엄과 명령이 몹시 높아서 관청 일이 그 자리에서 결정되고, 광해군의 동서로서 관서백(關西伯)이 된 지 10년에 이 지역에 위엄을 떨쳤고, 북쪽 오랑캐도 또한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국경을 넘어 오지 못하였다. 일찍이 막비(幕裨)를 불러 술과 안주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가지고 중화 구현(駒峴)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두 사람의 건장한 사나이가 채찍질하며 말을 타고 지나갈 것이니, 내 말로 전하기를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왕래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행역이 참으로 괴롭겠기로 술과 안주를 보내는 것이니 취하게 마시고 속히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라.”

하였다. 막비가 즉시 가서 기다리자 과연 두 사람이 지나므로 박엽의 말로 전하니 두 사람이 서로 돌아보면서 실색하여 말하기를,

16) 디지털성남문화대전. <http://seongnam.grandculture.net/seongnam/toc/GC00100301> 검색일: 2021.08.10.

17) 박영준 옮김, 「이인과 호장 용골대」, 『한국설화·전설대전집(韓國說話·傳說大全集)』, 대양사, 1978, 311~315면.

“장군은 신인(神人)이로다. 우리가 어찌 감히 다시 오리오.”

하고는 술을 마시고 사라지니 이들은 곧 용골대와 마부대로 몰래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허실을 정탐함이었는데 박엽만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sup>18)</sup>

위 이야기는 염탐을 위해 조선으로 몰래 넘어오는 용골대와 마부대를 박엽만이 유일하게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박엽의 신이한 면모를 강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벽암대사와 김복선 설화에서 봤던 것처럼 용골대는 조선인 박엽의 비범함을 깨닫고 그의 면모에 흠칫 놀라게 된다.

이렇듯 용골대가 조선인의 비범한 면모를 감지하는 이야기는 왜 전승되었을까. 사실 위 설화들은 모두 주인공이 용골대가 아니라 조선인이다. 벽암대사, 김복선, 박엽의 비범한 면모를 드러내려는 목적의 이야기이다. 조선의 비범한 인물을 통해 조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설화에서 용골대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왜 용골대가 비범한 인물의 상대자로 소환되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역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용골대가 조선에 강한 인상을 남긴 청나라 장수라는 점이다. 이렇게 막강한 장수조차 인정할 정도로 주인공이 비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용골대를 불러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비범함을 감지하는 것까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설화에서는, 비록 이야기의 표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용골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용골대가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조선인의 비범함을 비유하기 위해 용골대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때 용골대는 이야기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마치 장계와 일기 혹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고전소설에서 용골

18) 及治郡邑에 威令甚峻하야 官事立辦하고 以光海之同壻로 爲關西伯十年에 威振一路하고 北虜亦畏之하야 不敢越境이러라 嘗呼幕裨하야 給以酒肴曰 汝持此하고 往中和駒峴留待則必有二健夫執策而過者리니 以吾言으로 傳諭曰 汝輩之來往我國을 謂人莫之知而吾則已知之라 行役良苦하리니 爲送酒肴하야 可一醉而速歸也하라 幕客이 卽往而待之하니 果有二人之過者어늘 以桴言으로 傳之하니 二人이 相顧失色曰 將軍은 神人也라 吾輩何敢更來리오 因飲酒而去하니 此는 卽龍骨大馬夫大潛來我國하야 爲探虛實而桴獨知之러라. 『동야휘집(東野彙輯)』(강효석, 이민수 옮김, 『대동기문(大東奇聞)』中, 명문당, 2000, 223면).

대의 인물 형상이 등장할 경우, 용골대가 서사의 주체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 2. 조선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함께하려는 존재

앞서 살펴본, 조선인의 비범함을 ‘감지하기만’ 하는 용골대는 서사에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비범함을 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러한 조선인과 무언가를 함께하려는 모습으로 용골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가 ‘감지하기만’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면, 2절에서 파악하는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설화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계암만록』에는 이른바 ‘우풍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 용골대가 등장한다. 우풍헌은 조선인으로, 비상한 능력을 가졌지만 숨기고 살다가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남한산성에 가서 군사를 빌려 호병(胡兵)을 섬멸하려 한다. 이때 우풍헌을 본 금나라 왕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장수 용골대에게 감히 자신의 앞을 당당히 지나가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데, 용골대는 그가 신출귀몰의 재주를 가져서 금나라 군대에서는 당해낼 자가 없는 우풍헌이라는 인물이라고 대답한다. 용골대는 우풍헌이 군사를 얻으면 금나라 군대가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도, 조선에서는 인재를 등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풍헌이 군사를 빌리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금나라 왕은 용골대에게 우풍헌이 돌아가는 길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만나게 된다면 그를 설득해 장수로 삼겠다고 말한다. 남한산성에 들어간 우풍헌은 용골대의 예상대로 군사를 빌리지 못한다. 조선의 대신들은 하나같이 그가 허황된 말을 한다며 듣지 않았다. 우풍헌은 돌아오는 길에 금나라 왕을 만나게 되고, 금나라 왕은 그에게 금나라와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러나 우풍헌은 거절한 뒤 진영을 나오고, 몇 걸음 뒤 사라진다.<sup>19)</sup>

이 이야기에서 용골대는 조선인인 우풍헌을 청나라 장수로 삼고 싶어 한

19) 『계암만록(鷄鴨漫錄)』,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韓國野談資料集成)』 8, 경인문화사, 1987, 234~236면.

다.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피아(彼我)를 떠나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계해(1623)년 삼월에 인조가 반정한 뒤, 박엽이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칼을 어루만지며 탄식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엽이 물었다. “누구나?”

“아무개올시다.” / “무슨 일로 왔는고” / “공은 장차 어떤 계책을 세우시렵니까?”

“나에겐 정해둔 계책이 없으니 어디 자네에게 물어보세.”

“상책과 중책과 하책이 있으니 청컨대 이 중에서 택하십시오.”

“무엇이 상책인가?”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를 방어하고 북으로 금나라와 내통하십시오. 그러면 임진강 서쪽은 조정의 국토에서 떨어져 나올 것이며, 또 아래로 위타(尉佗)처럼 황제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책인가?”

“급히 병사 삼만 명을 동원하여 제가 그들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하게 하신다면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책은 무엇인가?”

“공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받은 신하이니 순순히 나라의 명을 받드는 것이 가한 것입니다.”

박엽이 한참을 깊이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하책을 따르겠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종적을 감추겠습니다.”

하고는 간 곳을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용골대였다고도 말한다.<sup>20)</sup>

어떤 이가 박엽에게 진지하게 제안을 한다. 상책, 중책, 하책을 하나씩 설명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박엽은 하책을 선택하

20) 癸亥三月에 仁祖反正後에 燁이 獨坐燭下하여 撫劍發嘆이러니 窓外에 有咳嗽聲이라 問 誰也오 對曰 某也로라 曰 胡爲而來오 曰 公이 將何以爲計오 曰 吾無定算하니 試問於汝하노라 對曰 有上中下策하니 請擇於斯하라 曰 何謂上策고 曰 擧兵自衛하고 北通金人則臨津以西는 非朝家之有也오 且下不失尉佗之計也니라 曰 何謂中策고 曰 急發兵三萬人하야 使吾將之하야 鼓行而東則勝敗를 未可知也니라 曰 何謂下策고 曰 公은 世祿之臣也라 順受國命이 可矣니라 燁이 沈吟良久에 喟然嘆曰 吾從下策하리라 曰 小의은 從此逝矣라하고 仍不知處하니 或傳此是龍骨대云이러라 『동야회집(東野叢輯)』(강효석, 이민수 옮김, 앞의 책, 225~226면).

고 결국 죽음을 맞는다. 그런데 설화에서는 이 제안을 한 이가 용골대였을 것이라고 간접 화법을 통해 말해준다.

상책과 중책은 박엽이 신하로서의 도리를 저버려야만 하는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 박엽이 목숨을 건질 뿐 아니라 권력을 손에 넣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박엽이 상책과 중책을 택하지 않고 하책을 택하자 용골대는 종적을 감추게 된다. 이를 통해 용골대는 박엽이 상책과 중책 중 하나를 택하여 본인과 힘을 합치기를 바랐던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용골대가 능력과 절의를 모두 갖춘 박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이다.

박엽과 용골대 사이의 일화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채록 기록 중에도 이처럼 용골대가 박엽에게 힘을 합쳐 거사를 도모해보자는 일화가 나온다. 더구나 이 채록에는 용골대와 마부대가 등장하며, 그들이 평양감사가 된 박엽의 수하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채록] 그 쪼끔 있더니 말바리 소바리가 닥치는데 그 금방 먹을 음식, 또 장차 먹을 음식, 돈이며 피륙이며 쌀이며 당최 굉장히 들어와요. 하구선 썩 들어와서 절을 하군,

“소인이 인제는 소원을 풀었입니다. 전부덤두…….”

그게 누구냐 해면 용골대야. 야중에 청나라에 가가주군 우리나라에 선봉으로 나온 용골대 마부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야.

“그 나두 참다 견디다 못해 할 수 없이 회절을 했다. 하하하.”

이렇게 농담을 했었어. 늘 간청하기를 베슬길에 나가라는 게야. 나가서, “서방님이 대장이 되시구 소인이 선봉장이 된다며는 어느 나라는 못 치며 어느 군사는 못 깨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일 좀 해보십시다.”

“에이 안 된다 안 된다.”

늘 그렇게 백새우구 그 무슨 금전에 원조를 쥐두 영 사절하구 받들 안 했어. 그러다가 그 부인이 흠 먹다가 우는 걸 보구 고만 할 수 없이 그 회절을 한 게야.

그래 야중엔 평양감사 가잖았요. 그 얼마 안가서. 박엽이가 평양감살 갔지.

갔는데 이제, 마부대 용골대가 다 거기 와서 수하에 심부름하구 이제 참 군사 두 조련시키구 이렇게 됐어.<sup>21)</sup>

21) 「박엽과 용골대」, 『한국구비문학대계』 4-3, 201~205쪽, 채록자: 외암리, 채록자: 서대석, 구연자: 이용정.

용골대가 평양감사의 수하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위 이야기 말고도 또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또 다른 채록 기록에 용골대가 평양감사의 비장으로 등장한다.<sup>22)</sup> 이들 설화에서 용골대는 청나라 장수로 불리기는 하지만, 이미 그 정체성은 많이 희석되었다. 그보다는 조선의 비범한 인물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이 더욱 강조된다.

국적에 개의치 않고 비범한 인물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하려는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만들어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까? 우풍헌과 박엽의 존재,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국가 권력의 태도를 통해 일말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우풍헌은 세상을 주름잡을 능력과 재주를 지녔지만 숨기고 살았다. 용골대는 그가 군사를 모아 호병을 섬멸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조선이 인재를 등용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엽과의 일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박엽은 분명 비범한 존재인데 국가 권력은 그를 제거하려 하고, 용골대는 그런 그가 죽기 보다는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용골대가 조선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는 모습에서, 하물며 적군 장수도 알아보는 인재를 우리의 국가 권력이 알아보지 못함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다음의 설화를 통해 더 확고해질 수 있다. 충남 서천 지역에는 용골대와 관련한 설화들이 적잖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3)</sup> 1990년대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다섯 종 정도의 용골대 관련 설화가 존재한다. ‘월명산의 업동이 용골대 망골대’, ‘용골대 망골대 장수가 고누 두던 바위’, ‘중국으로 건너간 용골대 망골대’, ‘용골대 망골대가 이 잡아 죽인 바위’, ‘박씨 부인 도움으로 임경업과 싸움을 면한 용골대와 망골대’ 등이 그것이다. 그중 ‘월명산의 업동이 용골대 망골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평양감사와 용골대』, 『한국구비문학대계』 1-7, 536~540면. 채록지: 상방2리 고창, 채록자: 성기열, 정기호, 구연자: 신의하.

23) 서천군, 『서천군지』 1, 서천군지편찬위원회, 2009, 557~584면. 이 자료는 서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어느 땐가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아기가 있어서 아기를 데려다 키웠는다. 아기가 커 가지고 장성해 가지고, 백제 땐가, 언젠가 무슨 벼슬을 달라고 한게, 하직이여, 제일 말단. 벼슬은 달라고 한게 거기 반대하고서, 그래 중국 가서 여기 한국을 쳐들어왔다고 했었다고 하는 용골대 망골댄가 하는 진실이 있었는데 자세히 모르겠어. [구술자 : 판교면 다사리 유연례(여, 49), 구술 시기 : 1997년]

용골대인지 망골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인물이 원래 백제 때인가 이곳에 살았던 사람인데 능력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해서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었다고 구술하고 있다. 이 설화에서는 용골대를 아예 우리나라 사람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뛰어난 장수를 알아보지 못해 다른 나라로 떠나보냈다고 설명한다. 용골대의 국적을 떠나, 그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존재로 설정한 것이다.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능력 있는 존재를 만나면 적극적으로 함께하려는 용골대의 모습과 대비된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설화는 불평등한 현실을 직시한 향유자들이 능력 본위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승하였을 것이다. 이들 설화에서 용골대는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는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청나라 장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는 청나라와의 혹은 외부 세력과의 대결에서 능력 부족으로 처절하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위정자들에 대한 원망이 그 출발점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결에서 승리했던 용골대에게 능력 본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 형상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본다. 그가 심지어 원래는 조선인이었다는 발언을 통해 이러한 해석에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설화에서 용골대는 비교적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앞서 ‘조선인의 비범함을 감지하기만 하는 용골대’와는 서사적 비중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설화가 표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용골대는 우리에게 굴욕적 패배를 안긴 장수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 우리가 반성하고 배워야 하는 모습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된다.

지금까지 설화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화 또한 허구적 성격이 강한 서사인 만큼 역사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설화에서 용골대는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다. 다만 그 방향이 고전소설과는 다르다.

고전소설 속 용골대가 통속적 서사의 등장인물로 수렴된 반면, 설화 속 용골대는 단순히 서사적 역할과 의미로만 한정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 설화 속에서 용골대는 늘 조선인과 비교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현실 문제와 연관을 맺게 된다. 용골대는 조선의 권력이 무능하고 시야가 좁아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런데 그 지적은 문제를 직접 꼬집는 날 선 비판이 아니다. 장계나 일기와 같은 경험적 서사는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비판하였다면, 설화는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풍자하였다.

이야기로서의 재미도 추구함은 물론 사회적 문제의식에 대한 통찰력 있는 풍자적 시선을 담아낸 것이다. 용골대는 이야기 속 비판적 시선의 중심에 있다. 비범한 조선인의 능력을 견주어 보기 위해 용골대가 등장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그와 반대로 용골대를 등장시키기 위해 비범한 조선인을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설화 속 용골대의 인물 형상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V. 결론

이 글은 병자호란의 청나라 주역이었던 용골대가 우리의 서사문학에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험적 서사에 해당하는 장계와 일기, 허구적 서사에 해당하는 고전소설과 설화 등을 살펴보았다. 용골대라는 인물은 이들 서사문학에 두루 등장하였으며 다채로운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장계, 일기와 같은 경험적 서사에서는 용골대가 역사나 역사적 실상에 가깝게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데,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다. 이 경우 용골대는 서사의 중심

에 오기보다는 서사가 조선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부분적으로만 포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허구적 서사 중 고전소설의 경우 용골대 인물 형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 그래서 이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1유형을 다시 1-1유형과 1-2유형으로 나뉘었다. 2유형에 해당하는 <배시황전>은 작품에 담긴 용골대의 독특한 특성이 오히려 설화와 많이 닮아 있었다. 1유형에 해당하는 네 작품 속 용골대는 모두 큰 틀에서 통속적 영웅 서사의 악인으로 대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유형은 여전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서사가 존재하는 편이고, 1-2유형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통속적 영웅 서사의 전형적 악인형 인물이 정착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용골대라는 역사적 인물이 고전소설 속에서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허구적 서사 중 설화의 경우 용골대가 무조건 악인으로 형상화되기보다는, 조선인과의 일화를 통해 선악의 도식이 무의미한 캐릭터로 존재하기도 하고, 심지어 용골대가 원래 조선인이라는 설정도 등장한다. 그리고 비범한 조선인과의 만남을 통해 용골대가 조선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화가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풍자의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심중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용골대는 비판적 시선의 중심에 있었다.

본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몇몇 설화를 통해 느끼는 바, 설화로 용골대의 인물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용골대가 친근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소통 가능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백두산을 넘어 몰래 조선에 들어오던 용골대가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돌아간 이야기는 아이들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용골대 마부대가 아이들의 놀림에도 겁을 먹는 친근한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는 듯하다.<sup>24)</sup> 또 다른 설화에서는 병자호란 때 용골대에게 잡혀간 부인을 찾아 먼 길을 찾아온 장 한림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다. 그 부인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24) 「용골대 마골대를 물리친 아이들」, 『한국구비문학대계』 1집 7책, 917~918면. 채록지: 황천리, 채록자: 조동일, 장원철, 서영숙, 신은경, 이종주, 구연자: 김재식.

면 길을 온 장 한림을 잡아 가두는데, 용골대가 그런 부인을 꾸짖으며 목을 치고 장 한림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25)</sup> 용골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초를 이해하는 인물로 형상화된 것이다.

서사문학의 다양한 하위 장르들은 각기 나름대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자호란의 주역이었던 용골대는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용골대가 준 상처를 직접적으로 드러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용골대라는 인물을 서사 속 한 인물 유형으로 대상화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골대를 통해 우리의 부족한 면모와 잘못된 현실을 되돌아보았다. 재난과 전쟁 이후 그에 대한 기억이 상처를 입힌 존재에 의해 매우 다채롭게 재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재난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혹은 과거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아닌 타자에 대한 시선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25) 「장한림과 용골대」, 『한국구비문학대계』 7-15, 401~406면. 채록자: 노상동, 채록자: 최정여, 박종섭, 임갑량, 구연자: 김호준.

## 참고문헌

### 1. 자료

- 소현제자, 『심양장계(瀋陽狀啓)』, 경진년(1640) 6월 20일.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심양장계(瀋陽狀啓)』, 1935.  
정하영 외 옮김, 『심양장계-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 2008.  
나만갑, 윤재영 옮김, 『병자록』, 명문당, 1987.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 <박씨전>.  
경관27장본 <남장군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비시황전>.  
김기현, 『박씨전, 임장군전, 배시황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현수문전>(경관75장본).  
신해진 역주, 『경관방각본 현수문전』, 보고서, 2021.  
「계암만록(鷄鴨漫錄)」,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韓國野談資料集成)』 8, 경인문화사, 1987.  
강효석, 이민수 옮김, 『대동기문(大東奇聞)』 中, 명문당, 2000.  
디지털성남문화대전.  
<http://seongnam.grandculture.net/seongnam/toc/GC00100301>  
검색일: 2021.08.10  
박영준 옮김, 「이인과 호장 용골대」, 『한국설화·전설대전집(韓國說話·傳說大全集)』, 대양사, 1978.  
서천군, 『서천군지』 1, 서천군지편찬위원회, 2009.  
「용골대 마골대를 물리친 아이들」, 『한국구비문학대계』 1-7.  
「평양감사와 용골대」, 『한국구비문학대계』 1-7.  
「박엽과 용골대」, 『한국구비문학대계』 4-3.  
「장한림과 용골대」, 『한국구비문학대계』 7-15.  
정하영 외 옮김, 『심양장계-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 2008.

### 2. 논문

- 권혁래, 「<비시황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209~246면.  
김기림, 「조선인의 청국 생활-소수자의 삶」, 『이화어문논집』 제34집, 이화어문학회, 2014, 37~62면.

김일환, 「북정(北征)의 기억」, 『한민족문화연구』 제66집, 한민족문화학회, 2019, 7~46면.

송하준, 「〈북정록〉의 소설화 과정과 그 성취」,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23~353면.

엄태웅, 「박엽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45집, 우리어문학회, 2013, 137~180면.

# Various aspects and meanings of character figuration of YongGolDae(龍骨大) in Korean classic narrative

Eom, Tae-ung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Qing Dynasty general YongGolDae(1596-1648), who was at the center of the ByeongJaHoRan, was embodied in the narrative litera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As is well known, the YongGolDae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ByeongJaHoRan, the one who inflicted great wounds on Joseon. To the Koreans, he was the object of fear. However, in Korean classical narrative literature, he is not only portrayed as a threat. By bringing historical events to the stage of the narrative, the victorious general YongGolDae is replaced by the defeated, and he is portrayed from a perspective other than the winner and loser composition. This proves that the figure of the YongGolDae has changed in a variety of ways within the broad spectrum of narrative literature of empirical and fictional narratives, and that the perception of YongGolDae and war has changed in the process. In order to examine this aspect, in this article,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the works in which the YongGolDae appears, ranging from works that correspond to empirical narratives to classical novels and tales have been derived.

keywords: YongGolDae, ByeongJaHoRan, *ShimYangJangGye*, *ByungJaRok*, *InJangGoonJeon*, *BakSiJeon*, *BakHikSanJeon*, *HyeonSooMonJeon*, *BaeSiHwangJeon*, ByeokAhmDaeSa, BakYeop, *DaeDongGiMoon*, WooPoongHeon, *GyeApManRok*, tale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 ~2021. 11. 10.

게재결정: 2021. 11. 10.